

치 사

**어제 우리 불교의 큰 어른이신
법정 대종사께서 열반하셨습니다.**

**오늘 저는 이 행사에 오기 전,
법정 대종사 영정 앞에서 동계올림픽
불자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하는
법회가 있음을 고하고 왔습니다.**

**선수단 여러분에게 스님의 숭고한
가르침을 전하겠다는 말씀도 드렸**

습니다.

**치사에 앞서 먼저 스님의 열반에
깊은 애도를 드리며, 여러분 모두가
스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
바랍니다.**

**경인년 새해 초에 열린 2010년
제21회 벤쿠버 동계올림픽에 참가한
불자 선수단 여러분이 있어 우리
모두가 행복했습니다.**

**그리고 여러 환영행사와 또 다른
대회의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에도
이처럼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마련한
환영식에 참석한 불자선수, 임원,
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.**

**올해는 60년 만에 한번 도래 한다는
백호(白虎)의 해입니다. 하얀 백호 같은
우리 불자선수들이 빙판과 설원에서
마음껏 자기 기량을 드높이며 열심히
하여 오늘의 영광된 자리에 있는 것
입니다.**

**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불자선수들은
관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.**

**더욱이 선수들 간의 융화를 통해
팀워크를 극대화함으로써 훌륭한 결실을
맺게 한 것은 불자다운 면모를 유감없이
보여주었다 할 것입니다. 그렇기에 한
국불교를 대표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총
무원장으로서 더욱 기뻐으며, 그 노
고에 고마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
니다.**

**더욱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
스피드 스케이팅 이규혁 선수가 보여
준 올림픽 정신과, 알아보는 이 없었던
봅슬레이에서 결선 진출까지 이루었던
강광배 선수의 선전은 깊은 감동을
주었습니다.**

**또한 우리 대표선수들에게 전체적으로
더 나은 경기력을 갖게 하고 정신적
지도를 아끼지 않은 불자 임원 여러분
들의 열성과 노고를 보고받으면서 감사의
마음을 뒤로할 수 없었습니다.**

**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횃불을
가지고 어두운 방에 들어갈 때, 그
어둠이 없어지고 광명만이 남는 것과
같다고 하였습니다.**

**이번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불자
선수들과 임원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의
챔피언이고, 우리 불자들의 챔피언입니다.**

**또한 스포츠계 뿐 만아니라 여러 가지로
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에 희망을
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.**

**오늘 본 종단은 지난 밴쿠버 동계올림픽
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불자선수들과
임원단을 모시고 조출하게나마 환영식을
빌어 치하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**

**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목표와 과제를
설정하여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
여러분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
항상 하기를 기원할 것입니다.**

**저와 모든 불자들이 여러분들을 응원
하겠습니다.**

**최선을 다함으로서 값있게 시작한
경인년에 모든 불자 선수단과 가족들의
행복과 건강을 기원 드리며, 더욱
향상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**

**벤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불자
선수여러분! 임원여러분! 그리고
가족 여러분! 고맙습니다!**

불기 2554년 3월 12일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